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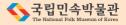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10 October 2012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Museum Auditorium 2012년 10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일요상설공연 Sunday Performances, Museum Courtyard 2012년 10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10월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for October, Every Saturday 15:00, Museum Auditorium 2012년 10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제766회

채주병의 현금(거문고)타고 놀자

Let's Enjoy Plucking Strings (Geomungo) by CHAE Joobyeong 10.06.



제767회

서울 노들제 굿 '자리걷이'

Traditional Nodeulje Gut 'Jarigeoji' 10.13.



제768회

창작그룹 더 안송의 가야금 소리

Sound of Gayageum by Changjak Group the Ahn 10.20.



제769회

무(舞), 향(香)

Mu (Dance), Hyang (Fragrance)

10.27.



* 공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above schedule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10월 일요열린민속무대

Sunday Performances for October, Every Sunday 14:00, Museum Courtyard 2012년 10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제326호

국악 드림 콘서트 '판-打-STICK' Gugak Dream Concert 'Pan-Ta-STICK' 10.07.



제327회

필봉농악과 함께하는 흥겨운 한마당 An Exciting Festival with Pilbong Nong-ak 10.14.



제328회

무형문화재 제17호 우도농악 Intangible Cultural Asset No.17 Udo Nong-ak 10.21.



제329회

두드림의 승부사, 여행 The Adventure, Joyful Beating 10.28.

10월 정자나무그늘 수요민속음악회

Wednesday Folk Music Concerts for October, Museum Courtyard 2012년 9월~10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10.10 | 팽려령, 중국 전통음악 Chinese Traditional Music

10.17 | 호연. 소리로 떠나는 여행 The Adventure to Sound

10.24 | 이선. 가야금 병창 Gayageum Byeongchang (Singing Along with Gayageum)

10.31 | 타투, 모듬북 한마당 Beating Festival

채주병의 현금(거문고)타고 놀자

Let's Enjoy Plucking Strings (geomungo) by CHAE Joobyeong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6 October 2012(Sat), Museum Auditorium



■ 공연내용

이번 공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악기중 하나인 거문고 연주를 선보인다. 오동나무와 밤나무를 붙여서 만든 울림통 위에 명주실 6줄을 꼬아서 만든 악기로 술대라는 조그마한 막대기를 이용하여 줄을 치거나 뜯으며 악기의 특성에 맞는 연주 기법으로 풍부한 음색을 보인다.

첫 무대는 조선시대 선비들에 의해 주로 연주되던 곡으로 세 개의 악곡으로 이루어진 모음곡이며 음의 변화가 다양하여 매우 흥겨운 '천년만세'로 시작한다. 이어서 관현악 반주에 따르는 전통 성악곡 태평가는 북한 작곡가 김용실이 흥남제련소에서 강철을 만드는 노동자의 모습을 형상화해 만든 곡이다. 출강은 창작 국악곡이며, 민요의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에서 악상을 얻어 작곡된 '여섯줄을 위한 대화', 기악독주 신쾌동류 거문고산조, 마지막으로 자진모리장단에 이어서 연주되는 민속악 동살푸리로 공연을 마무리한다.

■ 공연순서 PROGRAM

- 1 천년만세 Cheonyeonmanse
- 2 가곡: 태평가 Taepyeongga
- 3 출강 Chulgang
- 4 여섯줄을 위한 대화(2중주) Conversation for Six Strings
- 5 신쾌동류 거문고산조 Sinkwaedongryu Geomungo Sanjo
- 6 동살푸리 Dongsalpuri

PERFORMANCE DESCRIPTION

Performances of one of archetypical Korean string instruments, geomungo, will be presented. A resonator made of paulownia and chestnet tree, and twisted 6 silk threads are plucked or beaten with a short pole called Suldae. It is played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rument to make rich sound.

The first song 'Cheonyeonmanse' was mainly performed by the scholars of Joseon Dynasty. It is a composite of three parts and has a variety of dynamics in its tunes. Following is 'Taepyeongga', a traditional vocal music that goes with orchestra. 'Chulgang' is composed by a composer from North Korea, KIM Youngsil, and it sings about the laborers who make steel at Heungnam Refinery. 'Conversation for Six Strings' is a creative gugak song composed out of an insight from the folk songs tossing parts and receiving parts. 'Sinkwaedongryu Geomungo Sanjo' is a solo instrumental piece. The last song is folk music 'Dongsalpuri' that is played according to Jajinmori rhythm.



대표 채주병 | 경기도립국악단 악장 출연 박영기, 조일하, 김승애, 정길순, 정도형, 이석종, 박남언, 박성아, 유은정, 조경선

제766회 토요상설공연 The 766th Saturday Performances

전통 노들제굿 '자리걷이'

Traditional Nodeulje Gut 'Jarigeoji'

2012.10.13. Sat (E) 3:00 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13 October 2012(Sat), Museum Auditorium



■ 공연내용

이번 공연은 우리나라 무속신앙의 하나인 전통 노들제굿 '자리걷이'을 선보인다. 한양굿에는 크게 세 종류의 굿제가 있다. 사대문 안에서 행하여지는 궁제, 동대문 밖 즉 왕십리 답십리 쪽에서 행하여지던 동제, 서대문 밖에서 행하여지던 노들제(서제)를 들 수 있다. 본 무대에서 행하여지는 노들제는 노량진을 시발점으로 부천, 인천, 강화, 개성 등 중부 서쪽과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굿제를 말한다. 노들제의 특징으로는 춤사위(도 듬춤, 다다미춤, 짝춤 등)가 크고 활발하며 소리는 고음으로 올라가면서 꺾고 떠는 소리가 많으며 굿의 내용에 따라 시나위 소리가 들어가기도 한다.

'자리걷이'는 3일장이나 5일장 장례를 치르고 발인한 날 밤에 망자가 누워있던 자리를 깨끗하게 걷어내어 망자와 살아있는 일가친척들의 원을 풀어주는 의식을 시연하는 자리이다.

■ 공연순서 PROGRAM

- 1 부정치기 Bujeongchigi
- 2 넋대잽히기 Neukdaejaepigi
- 3 넋상 올리기 Neuksang Oligi
- 4 사자거리 Sajageori
- 5 망자 청하기 Mangja Cheonghagi
- 6 상식 올리기 Sangsik Oligi
- 7 자리걷이 Jarigeoji
- 8 망자 하직 Mangja Hajik
- 9 뒷전 Duitjeon

PERFORMANCE DESCRIPTION

One of Korea's shamanism religions, Traditional Nodeulje Gut 'Jarigeoji' is presented. As for Hanyanggut, there are three kinds of gut rituals. Gungje used to be performed inside area of the Four Big Gates and Dongje used to be performed in Wangsimni and Dapsimni, outside of Dongdaemun (east gate). Nodeulje (Seoje) was performed outside of Seodaemun (west gate). Nodeulje refers to a gut festival which used to be held in mid-western and northern area as to Bucheon, Incheon, Gangwha, Gaesung, starting from Noryangjin. The special characteristic of Nodeulje is that dancing movements (Dodeum dance, Dadami dance, Parter dance, ect) are large and animating and the sound suddenly rises and vibrates as it goes up. Sinawi sound is sometimes added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gut. Through 'Jarigeoji', a ritual to console the remaining relatives as well as the dead person by cleaning up the sites where the corp was laid during the night of the last day of three days or five days funerals is represented.



대표 이순자 | 전통 노들제 굿 보존회 회장

출연 이경석, 이광복, 김정남, 라명진, 유인희, 신항란, 최현희, 이옥희, 최종석, 정희순, 김선자, 김영순, 지선이

제767회 토요상설공연 The 767th Saturday Performances



이번 공연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된 가야금 병창을 선보인다.

첫 무대는 우리 전통 가야금을 개량하여 풍부한 음색과 서양의 음계를 모두 표현 할 수 있는 25현 가야금으로 팔도 아리랑 중 '정선아리랑'을 편곡한 '정선에 내리는 비'를 선보인다. 이어서 25현 가야금과 클래식 가야금을 포함하여 세 개의 악기로 선보이는 3중주, 25현 가야금으로 판소리 춘향가 중 춘향이가 옥중에서 이도령을 그리워하는 대목 '쑥대머리', 가야금으로 듣는 영화음악, 판소리 흥보가 중 빠른 리듬으로 제비가 다시 돌아오는 대목 '제비노정기' 이어진다. 마지막 공연은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는 여러 민요를 25현 가야금 병창으로 감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공연순서 PROGRAM

- 1 정선에 내리는 비 Rain in Jeongseon
- 2 25현 가야금 클래식 가야금 3중주 Trio
- 3 25현 가야금을 위한 '쑥대머리' Ssukdaemeori
- 4 가야금으로 듣는 영화음악 Movie Sound Track Played by Gayegeum
- 5 25현 가야금을 위한 '제비노정기' A Journey of a Swallow
- 6 민요모음곡 Medley of Folk Songs

PERFORMANCE DESCRIPTION

Gayageumbyeongchang (singing along with gayageum) in this performance has been designated as a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No.23. The first song is 'Rain in Jeongseon', an arrangement of one of arirangs in eight provinces. Every note of western music can be presented through 25 stringed gayageum.

Following is 'Trio' that is composed of three musical instruments including 25 stringed gayageum and classic gayageum. 'Ssukdaemeori' is a part of pansori Chunhyangga where Chunhyang in prison pines her lover Lee. The next is 'Movie Sound Track Played by Gayegeum'. 'A Journey of a Swallow' is the phrase from Pansori Heungboga where a returning swallow is depicted with speedy rhythms. Lastly coming is a 'Medley of Folk Songs' favored by public.



대표 천주미 | 중요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출연 천수민, 정보라, 김미림, 이슬이, 원지예, 한송이

제768회 토요상설공연 The 768th Saturday Performances



이번 공연은 최선무용단이 '무(舞), 형(香)' 이란 주제로 다양한 한국 전통 춤사위를 선보인다. 첫 무대는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는 것에 유래한 민속춤 '태평무'로 그 문을 두드린다. 이어서 한 폭의 수묵화 같이 여인의 절제된 내면을 춤사위로 표현한 '여인의 향기', 고구려 무사의 강인한 움직임과 날렵함을 표현한 '여명의 빛', 한국무용의 특징인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의 미가 극치를 이루는 살풀이춤, 아름다운 부채를 펴고 접는 가운데 우아함을 보여주는 춤사위 부채춤, 하늘의 문을 열고 땅이 생동하는 사물반주에 소고춤과 진도북춤으로 역동적이며 아름다운 몸짓으로 한국의 멋과 흥을 고루 갖춘 우리 춤의 무대를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다.

■ 공연순서 PROGRAM

- 1 태평무 Taepyeongmu
- 2 여인의 향기 Fragrance of a Woman
- 3 여명의 빛 Light of the Dawn
- 4 살풀이춤 Salpurichum
- 5 부채춤 Buchaechum
- 6 소고춤 Sogochum
- 7 진도북춤 Jindobukchum

PERFORMANCE DESCRIPTION

CHOI Seon Dance Company presents a variety of Korean traditional dancing movements under the subject of 'MU (Dance), Hyang (Fragrance)'.

The firstly coming is 'Taepyeongmu', a folk dance derived from wishing of the nation's peace and prosperity. 'Fragrance of a Woman' expresses a woman's self controlled mind like a India ink drawing. 'Light of the Dawn' describes toughness and agility of a warrior of Goguryeo. 'Salpurichum' makes an extreme of aesthetics of movements in serenity which is also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dances. 'Buchaechum' shows elegance of folding and unfolding of beautiful fans. Background music of percussion quartet, a sound of opening the heaven and enlivening the earth goes with 'Sogochum' and 'Jindobukchum'. The Audience is invited to share the Wonder and Excitement of Korean dances composed of dynamic and beautiful movements.



대표 최선 | 공주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출연 장옥주, 김주영, 김민정, 이효진, 신하얀, 김진희, 윤영아, 김지은



이번 공연은 전통예술단 호연(浩演)에서 전통연희, 무용, 기악, 성악 등 다양한 장르의 국 악을 선보일 것이다.

첫 무대는 현대음악과 전통음악의 가락과 장단을 혼합한 공연으로 대북과 모듬북의 흥겨운 소리와 리듬을 경쾌한 리듬에 맞춰서 웅장하게 선보인다.

이어서 판소리와 국악실내악의 아름다운 선율이 이어지고 다음은 경쾌한 사물반주에 역동적이며 아름다운 몸짓으로 한국의 멋과 흥을 고루 갖춘 진도북춤을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사물판굿에 재미와 극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재구성한 작품으로 관객과 호흡하며 즐길 수 있는 'Fun & Good'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 공연순서 PROGRAM

- 1 모듬북 합주곡 '판 打 STICK' Modeumbuk Concert 'Pan-Ta-STICK'
- 2 국악실내악과 판소리 Gugak Ensemble and Pansori
- 3 진도북춤 Jindobukchum
- 4 Fun & Good Fun & Good

PERFORMANCE DESCRIPTION

A variety of genres of gugak in the form of traditional performances, dances, instrumental music, vocal music are presented by Traditional Art Company Hoyeon.

The first stage is made with combined melodies of modern and traditional music through exciting and playful sound and rhythms of daebuk and modeumbuk.

Nextly following is performed by gugak ensemble music company which can cover from traditional vocal music to western music. It makes beautiful sound together with pansori on this stage.

Jindobukchum contains elegance and excitement of Korea, expressing them through animating percussion quartet background music and beautiful body movements. The last performence is 'Fun & Good' to enjoy existing Samulpangut in an rearranged form with the addition of entertaining and dramatic elements.



대표 이찬행 | 전통예술단 호연 대표

출연 조영준, 조영두, 박병용, 최동한, 이용준, 최보근, 강순주, 지현미, 김 란, 이한나, 한덕규, 오병옥, 최동현, 박미현, 이예언, 송현주, 이연주, 강윤지, 전민지

제326회 일요열린민속무대 The 326th Sunday Performances



이번 무대는 전라북도 임실 필봉리에서 전승되고 있는 농악으로 호남좌도농악에 속하는 임실필봉농악의 흥겨운 무대를 선보인다.

필봉마을에는 예로부터 당산굿. 마당밟기의 비교적 단순한 농악이 전승되어 왔는데, 오늘날과 같이 높은 수준이 된 것은 1920년경에 상쇠 박학삼을 마을로 초빙하여 그의 농악을 배우면서부터라고 한다. 중요무형문화재 11-5호로 지정되어 있는 임실 필봉농악은 쇠가락(꽹과리 가락)의 맺고 끊음이 분명하여 가락이 힘차고 씩씩하며, 개개인의 기교보다 단체의 화합과 단결을 중시한다. 또한 필봉농악의 큰 특징으로는 다른 지방의 농악에 비해 뒷굿 또는 놀이 중심이 강하여 잡색, 고깔, 소고가 많고 가락은 전체적으로 힘차고 꿋꿋하고 투박한 느낌이 강하다는 점이다.

■ 공연순서 PROGRAM

- 1 굿머리굿(기굿) Gutmeorigut
- 2 외마치질굿 Oemachijilgut
- 3 채굿 Chaegut
- 4 호호굿 Hohogut

- 5 풍류굿 Pungryugut
- 6 방울진굿 Bang-uljin-gut
- 7 미지기영산굿 Mijigi-yeongsan-gut
- 8 가진영산굿 Gajin-yeongsan-gut

PERFORMANCE DESCRIPTION

Pilbong Nong-ak in the kind of Honam Jwado Nong-ak, is being inherited in Pilbongri, Imsil of Jeonrabukdo province.

In Pilbong village, just simple Nong-aks such as Dangsangut and Madangbapgi had been handed down from long ago. However, it began to flourish when Sangsoe PARK Haksam came to the village in 1920 to teach his Nong-ak to the villagers.

Imsil Pilbong Nong-ak (Designated 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No.11-5) has strictly distinctive kkwaengwari rhythm that brings vigorous and cheerful feelings, while the unity of the performers is deemed more important than the individual plays and skills. Another characteristic of Pilbong Nong-ak is its playfulness. Compared to the performances of other regions, it has more performers of Jabsaek, Gokkal and sogo. Its rhythm is generally felt dull and strong as well as vigorous.



- 대표 한재훈 | 중요무형문화재 임실필봉농악 전수자
- 출연 서신석, 송미희, 권은정, 장우성, 손상아, 이창선, 김진국, 진재홍 김다혜, 유재임, 이영준, 최승학, 최정숙, 이승민, 임광표, 선봉주 이문형, 구철회, 박정원, 김기문, 구자문, 김지혜, 김진영, 김창순 김현진, 염명열, 오국진, 유소희, 이은(임실필봉굿 서울전수관 단원)

제327회 일요열린민속무대 The **327th Sunday Performances**

무형문화재 제17호 우도농악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17 Udo Nong-ak



2012.10.21. Sun (g) 2:00 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21 October 2012(Sun), Museum Courtyard



이번 공연은 무형문화재 제17호 우도농악을 선보인다. 우도농악은 전라도 영광, 고창, 장성, 광주의 광대들이 가歌. 무舞. 악樂을 함께 연희하던 신청걸궁으로서 조선시대 관청에서 행해지던 '나례'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재인 광대들이 관청에 나아가 연희하던 옛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신청걸궁이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통예술 전문집단이자 교육기관이었던 신청에서 삼현육각, 무굿, 풍물굿, 노래, 나례 등을 펼치는 것을 말하는데 본 공연은 신청예술 중에서 판놀음인 걸궁(판굿)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판굿의 꽃이라고 하는 구정놀이인 법꾸, 북, 장구, 상쇠, 12발 등을 모두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다.

■ 공연순서 PROGRAM

- 1 문굿 Mungut
- 2 오채질굿 Ochaejilgut
- 3 오방진굿 Obangjingut
- 4 구정놀이 Gujeongnori
 - 1) 법꾸놀이 Bupgunori
 - 2) 북놀이 Buknori
- 3) 설장구 Seoljanggo
- 4) 상쇠춤(부포놀이) Sangsoechum (Buponori)
- 5) 12발 상모 12bal Sangmo

PERFORMANCE DESCRIPTION

Udo Nong-ak (Intangible Cultural Asset No.17) originated from the traditional festival performance of Sincheonggeolgung, which used to be played by professional entertainers who performed singing, dancing and playing altogether in the district of Yeongmujang (Eastern area of Jeollado province). It corresponds to 'Narye', a court performance which was performed for the government officials in Joseon dynasty. Thus, the clowns' old countenance to perform in the government is particularly well preserved in the performance. Sincheonggeolgung refers to the performances like Samhyunyukgak, mungut, pungmulgut, norae, narye, etc. in Sincheong, the very core group of traditional art professional performers as well as a education institution. Among these performances, Geolgung(pangut) as pannoreum leads the program to present all bubgu, buk, janggo, sangsoe, 12bal, etc. which are said to be the extreme beauty of pangut.



대표 최용 | 우도농악보존회 회장

출연 류동현, 김진홍, 곽동욱, 신현택, 송미경, 임학목, 송정호, 최<mark>은미</mark> 박수복, 진미영, 김은숙, 김희례, 강정원, 김옥주, 이경선, 박하해 박공순, 김화순, 박화자, 백선희, 김준연, 서미영, 문진수

제328회 일요열린민속무대 The 328th Sunday Performances



이번 공연은 전통예술공연단 타투가 두드림의 승부사라는 그 이름이 상징하듯이 우리 나라 고유의 타악기 리듬으로 전 세계 뮤지션들을 제압하기 위한 강한 의지와 힘을 선보인다.

첫 무대는 우리나라 타악기와 서양악기 젬베가 한데 어우러져 기존의 연주방식을 깨고 새로운 형식의 타악연주 'The 원'을 선보인다.

이어서 꽹과리의 특유의 음색을 살려 선보이는 꽹과리 앙상블 '일식', 태평소와 사물이 서로 주고받으며 즉흥적이면서 자유분방한 타투와 날라리, 판소리 춘향가 중 이몽룡과 성춘향이 서로 사랑을 말하는 노래 사랑가, 마지막으로 머리로는 상모를 돌리고 팔로는 악기를 치며 다리로는 춤사위를 만들어내는 판굿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 공연순서 PROGRAM

- 1 The 원 The One
- 2 꽹과리앙상블 '일식' Kkwaenggwari ensemble 'An Eclipse of the Sun'
- 3 타투와 날라리 Tatu and Nalnari
- 4 판소리 Pansori
- 5 판굿 Pangut

PERFORMANCE DESCRIPTION

As inferred from the title 'The Adventure, Joyful Beating', the traditional art performance company Tatu has a firm will to win the world musicians with unique percussion rhythms of Korea.

The firstly shown 'The One' is a percussion performance played by Korean percussion instruments together with a western musical instrument jembe in a new format which transcends the existing play method.

Kkwaenggwari ensemble 'An Eclipse of the Sun' vividly presents unique tone of kkwaenggwari. 'Tatu and Nalnari' is played in very improvised and untied manner, like a conversing between taepyeongso and percussion quartet. Saranga is a song to whisper love poets that is sung by Lee Mong Ryong and Seong Chun Hyang in pansori Chunhyangga. The lastly performed 'Pangut' elaborates the finale of the performance by tassel hat dance, arms playing musical instruments and dancing movements made with legs.



대표 최재학 | 전통예술공연단 타투 대표 출연 이찬행, 김보미, 노민우, 이나름, 윤소영, 윤빛보리,

정지영, 김진아, 이승통, 황석찬, 정추리

제329회 일요열린민속무대 The 329th Sunday Performances

주말마다 신나는 우리민속공연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안국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5호선 :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버 스 광화문 세종로 일대 버스정류장(도보로 15분)

주 차 경복궁 주차장 이용(유료)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110-820)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amcheong-ro 37, Jongno-gu, Seoul, 110-820, Korea

전 화 02-3704-3110 홈페이지 http://www.nfm.go.kr



이용안내

개관 및 관람시간

3-10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11-2월 09:00-17:00, 16:00까지 입장 ※5-8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18:00까지 입장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